

■ 5·18 묘지 '소망의 벽'에서 새해 길을 묻다



국립 5·18묘지에 올해 세워진 '소망의 벽'. 병술년(丙戌年) 한해를 보내면서, 광주·전남 시도민들은 이 '소망의 벽' 앞에서 서서, 올해 이루지 못한 소박한 꿈들이 내년엔 꼭 이루어지길 기원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지역갈등 넘어... 분단의 장벽을 넘어...

높이 2m, 길이 165m. 광주시민들은 지난 5월 국립 5·18 묘지에 '소망의 벽'을 세웠다. 이후 사람들은 이 흰 콘크리트 벽에 자신의 소박한 꿈과, 광주의 염원, 나라를 위한 소망을 새겼다.

어느덧 병술년(丙戌年)의 해가 저물어가고 있지만, 이들의 소박한 꿈은 얼마나 이뤄졌을까? '소망의 벽'에는 통일을 염원하는 글이 단연 많다. '5월 정신으로 통일까지'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남·북이 하나 되는 것' '광주 정신 가슴에 담아 통일 조국의 깨지지 않는 불꽃으로 살아가자' 등의 글귀가 탐방객들의 눈길을 잡는다. 지난 6월14~17일 북측 대표단이 6·15 민족통일대추전에 참가하기 위해 광주에 왔을 때, 소망은 한결같이 이루어지는 듯했다. 남과 북의 동료들은

3박4일간 한데 어울려 한 민족임을 재확인했고, 월드컵경기장에서는 대형 한반도기를 함께 흔들었다. 통일이 저만치 보이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4개월 뒤인 지난 10월 9일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희망은 기억없는 꿈으로 변하고 말았다. 미국·일본은 물론 러시아와 중국도 북한에 대한 외교·경제적인 제재에 찬성하면서 한반도 주변은 초긴장의 상태로 변했다. 최근 6자 회담이 재개됐다는 소식만이 지역민들을 달랜 유일한 위안거리였다. '평화를 기원하는 글도 많다. 탐방

의 지지도가 13.3%를 기록, '마(摩)의 10% 벽'을 넘어섰다. 영·호남의 교류는 해를 거듭할수록 활성화되고 있다. 열악한 구직난을 반영하듯 취업을 희망하거나, 가족의 건강을 기원하는 아귀자기한 소망도 엿보인다. 힘들고 지친 시민들이 고해성사하는 기분으로 찾아와 새긴 글이다. 힘 없고 가난한 이들에게 '소망의 벽'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자,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신문과 같은 곳이다. 시민들은 내년에도 '소망의 벽' 앞에 설 것이다. 2006년의 어두웠던 기억을 훌훌 털어버리고 희망에 가득 찬 글을 쓰기 위해 붓을 들 것이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통곡의 벽'이 유대인들의 꿈을 이뤄준 것처럼, '소망의 벽'은 그들의 염원을 풀어줄 것인가.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7 광주일보 제17641호 2006년 12월 30일 토요일

부모 냉방에 방치 숨져 '비정의 아들' 실형 선고

한겨울에 병든 노부모에게 식사도 대접하지 않고 그대로 집에 방치해 결국 사망케 한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우 부장판사)는 존속유기치사 등으로 구속기소된 모 회사대표 박모(48)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평소 재산분배 문제로 부모와 심한 갈등을 빚고 부모로부터 존속폭행 등으로 고소를 당하기도 했던 박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부모를 모시고 있던 형이 "1주일만 부모님을 돌봐달라"며 갑자기 자신의 집에 데려다 놓았으나 부모를 집에 방치한 채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나 버렸다. 박씨 부모는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보일러 전원이 차단돼 난방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렸다. 박씨가 집을 나간 지 5일째인 1월3일 경비원에 의해 건강상태가 매우 악화된 상태로 발견됐고, 결국 박씨의 아버지는 그 해 3월 패혈증 등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고령으로 거동에 장애를 겪던 부모들만 집에 둔 채 음식도 못먹고 냉방상태에 지내게 한 행위는 그 동기 여하에 불구하고 인륜지도를 저버린 행위로서 엄히 처벌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부친이 사망한 뒤에도 피고인이 병문안을 가지도 않고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는 등 부모에게 사죄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마땅히 실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아들 자살 동기 명백히 밝혀달라" 순천시 학부모가 교육부에 탄원서

교육인적자원부는 29일 순천시 용당동 임모(49)씨가 "S중학교 3학년 재학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들의 자살 동기를 명백히 밝혀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탄원서에서 "막내아들이 2학년 3월부터 1년 넘게 같은 반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 때리고, 침을 뱉고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았다"면서 재조사를 요구했다. 임씨는 "아들이 숨진 후 같은 반 학생 30여 명이 장례식장에 찾아와 '잘못했다'면서 그동안 아들에게 했던 가혹행위를 털어놓는 등 눈물도 반성했지만, 학교 측은 '아무 일이 없다'며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씨는 또 "일부 학생들이 작성한 반성문을 담임교사와 교장이 찢고, 내용도 부르는 대로 바꿔 적으라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덧붙였다. 학교 관계자는 "집단 괴롭힘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 가정 불화 때문에 자살했다는 얘기도 나왔다. 학교에서도 직접 성적 때문에 자살했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임군은 지난해 5월17일 오전 "교우·성적·학업·진로 문제로 고민해 왔다"는 유서를 써놓고 자신의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했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kwangju.co.kr

광주 보육시설 22% 위법·부당 운영

234곳 보육료 부정수급·운영기준 미준수 등 적발

광주시내 보육시설 10곳 중 2곳 이상이 보육료 부정수급, 운영기준 미준수 등 각종 위법과 부당한 운영을 하다 적발됐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1월과 9월, 6월 등 3차례에 걸쳐 관내 보육시설 1천83곳에 대한 운영실태 전반을 점검한 결과 21.6%인 234곳이 보조금을 허위 청구하는 등 위법·부당운영 행위를

했다가 적발됐다. 방과 후 보육기준 위반 등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가 88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원초과 59곳, 보조금 허위 및 부당청구 45곳, 시설기준 부적합 42곳 등이다. 특히 허위나 부당하게 보육료를 청구, 반환이나 상계조치를 받는 액수가 13억 여원에 달했다. 시는 시설이 열악하거나 규정에 부적

합하고 사실상 미운영 상태에 있는 51곳의 인가를 취소했으며 19곳은 3개월의 운영정지 명령을 내렸다. 시는 보육 대상 아동의 감소로 보육시설 운영이 어려운 점을 감안, 신규시설 인가와 정원 증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광주지역 보육시설은 1천83곳으로 영·유아 4만1천465명이 다니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지하 송전선로 화재 통신광케이블 불타

29일 새벽 2시51분께 구리시 교문동 사거리에서 서울 망우리 방향의 왕복 6차선 중앙선 지하에 설치된 고압 송전선로에 불이나 6시간29분만인 9시께 진화됐다.

이날 화재로 지하전력구에 설치된 15만4천V 전력케이블 2회선, 34만5천V 전력케이블 4회선, 한전 전용 통신광케이블 등이 각각 100m 정도 불에 탄 것으로 보인다. 소방서 측은 덧붙였다. /연합뉴스



평중선도지의 중점특권을 누리는 3.036 최대단지!
 평면면적 80~120㎡ 광역 100㎡ 이하
 수전선도시 파오래
 문의전화 062-367-9000

심야 날치기 10대 2명 검거

광주 북부경찰은 29일 밤늦게 집으로 돌아가던 20대 여성의 핸드백을 빼앗아 달아난 류모(14)군 등 청소년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취중에 다른 모델방 들어가 '성추행'

○광주 서부경찰은 29일 새벽 3시10분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H모텔에서 방을 잘못 찾아 들어가 마침 홀로 자고 있던 여성을 덮쳐 한 정모(35·광주시 서구 금호동)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송년회 모임에 참석, 술을 지나치게 마시고 친구들과 모텔에 투숙했는데 취중에 다른 방에 들어가 홀로 자고 있던 이모(여·27)씨의 몸을 더듬고 성추행하려 한 혐의. ○경찰에서 이씨는 "남자친구와 함께 목욕탕에 갔는데, 먼저 보내고 혼자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이 들어와 몸을 더듬는 바람에 깜짝 놀라 신고를 했다"고 진술했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100년의 사랑 - 부채표
동화약품

나는 시원하고 부드러운 남자!
가스활명수같은 남자!

부채표가 없는 것은
 활명수가 아닙니다.

가스 성분으로 시원하게 소화시키고-
 11가지 생약성분으로 부드럽게 소화시키고-
 김동원도 가스활명수도 만능 엔터테이너답죠?

11가지 생약성분-
부채표 가스활명수

김동원